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문동규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A Meta-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Bullying Damage Experience of Adolescent

Dong-Kyu Moon

Division of Child Care Education, Sahmyook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지난 20여년 간 국내에서 연구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관련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발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발요인군의 개인심리요인군과 학교생활요인군 역시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발요인군 중 개인심리요인군의 하부요인인 공격성,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요인군인 학업스트레스 역시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억제요인 전체효과크기와 억제요인군의 가정환경요인군, 개인심리요인군, 학교생활 요인군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억제요인군인 중 가정환경요인군의 하부요인인 긍정적부모양육태도와 부모지지는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심리요인군의 하부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요인군의 하부요인인 친구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은 역시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선행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살피기 위한 수량적 통합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를 예방하고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meta-analysis of the effect size of related factors using research papers published within the past 20 years in relation to adolescent bullying experience in Korea. The verific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inducing factors, the overall effect size, personal psychology factor, and school life factor group showed a medium effect size. In the causative factors, the aggression, anxiety, stress,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and school stress of school psychological factors showed a moderate effect size. Second, in terms of deterrent, the overall effect size, family environment factor, personal psychology factor, and school life factor group showed a medium effect size. In the sub-factors of determinants, the parenting attitude, parental support, and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of the family environmental factor group also showed a medium effect size.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quantitatively integrate the previous studies to examine objective results. It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basic data in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making to prevent and reduce the bullying of youth.

Keywords : Adolescents, Bullying Damage Experience, Cyber Bullying,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ts, Meta-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Dong-kyu Moon(Sahmyook Health Univ.)

email: moon3636@shu.ac.kr

Received August 5,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Revised August 30, 2019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 4학년부터 고교3학년까지 39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만 명(1.3%)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언어폭력이 34.7%로 제일 많았고, 집단따돌림 17.2%, 스토킹이 11.8%, 사이버괴롭힘 10.8%. 신체폭행 10% 그 밖에 금품갈취 6.4%, 성추행·성폭행 5.2% 순이었다[1].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 피해 응답률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SNS가 보편화 되면서 단톡방에서 때로 욕설하는 '떼카', '방폭' 등과 함께 대화방을 탈퇴해도 다시 불러 초대해 욕설을 일삼는 '메신저 감옥',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켜도록 한 뒤 한꺼번에 접속해 데이터를 빨리 소진토록 하는 '데이터 셔틀'등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2].

집단따돌림 문제는 교육현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집단따돌림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말로리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17년 6월 집단따돌림으로 고통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말로리 그로스맨'의 사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자녀들이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의심이 들 때 학부모가 로컬 카운티·주 교육관계자들에게 즉각적인 조치와 관련 사안을 모든 학부모들에게 공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3].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청소년들은 분노를 억제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발산하게 될 위험성이 높은 데, 이는 억압되었던 분노감정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주며, 육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을 향하여 파괴적인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등 심각한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4, 5]. 또한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되는 역전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피해경험 청소년들이 자신이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 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집단따돌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6].

특히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은 우울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고 있어[7]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여년 간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대해 부적효과 요인과 정적효과요인으로 양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한 유발요인은 부정적 관계적 측면으로서 크게 보아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 측면에서 구분지어 보고되고 있는데, 가정환경 측면에서는 부정적부모양육태도, 개인심리적 측면에서는 공격성,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요인이 보고되고 있으며, 학교생활적 측면에서는 학업스트레스요인이 주요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5, 8, 9].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한 억제요인 역시 크게 보아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 측면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가정환경은 긍정적부모양육태도와 부모지지, 개인심리적 측면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요인이 보고되고 있으며, 학교생활적 측면에서는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교생활적응 등의 요인이 보고되고 있다.[10, 11, 12].

이와 같이 보고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각각의 연구의 필요에 따라 몇몇 요인을 선별하여 살핀 단편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선택된 요인들의 효과성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면, 연구마다 다른 관점과 이론적 틀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요인을 살피고 있어 영향력의 실체크기를 밝혀내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은 수년 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에서 추출된 계량적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실증적 자료를 산출하는 통계방법으로[13],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계속 누적되어 갈 때, 특정 연구의 결과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는 방법이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재민[15]의 연구를 기점으로 2019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 중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관련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수집하여 메타분석 하므로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된 유발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유발요인으로 구분된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요인군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또한 유발요인군 하부요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된 억제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억제요인으로 구분된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요인군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또한 억제요인군 하부요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 간 축적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계량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유발하고 억제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치는 본 연구결과에 따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며, 관련 후속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집단따돌림의 개념

집단따돌림(Bullying)은 특정인을 그가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또는 음해하는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16], 왕따, 집단 괴롭힘, 또래따돌림, 또래 괴롭힘 등의 용어 뿐 아니라 은어로서 은따, 전따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SNS를 활용한 카톡 감옥, '떼카', '방폭'이라는 신종집단따돌림 용어로 사회 환경에 맞게 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18]에서는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방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19]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자료에서는 '한 개인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결과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피해자 측면에서 집단따돌림을 정의하였다.

집단따돌림의 종류는 타인의 사회적 위치 및 친밀한 관계를 손상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고 경멸하기, 헛소문 퍼뜨리기, 친구관계 조정하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20], 특히, Crick 과 Grotmeter[21]은 친구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조종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관계적 공격으로 보고, 눈 흘기기, 기분 나쁜 표정과 몸짓, 나쁜 소문 퍼뜨리기, 뒷북치기, 친구에게서 고립시키기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특수교육학사전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행동으로, 폭행, 위협, 못살게 굴기, 놀리기, 소외시키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고 보았다[22].

2.2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하며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를 갖게 하여[23, 24],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교우관계와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며, 주위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성범죄나 성격이상 및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집단따돌림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불안, 자살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27, 28],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즉, 청소년기의 집단따돌림은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일시적 상황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피해 청소년들은 따돌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학습된 분노와 공격성이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상대로 나타나게 되므로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정적 순환과정을 만들게 된다[23]. 이와 같이 집단따돌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이차적인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3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보아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유발하는 유발요

인과 피해경험을 억제하는 억제요인으로 구분지어 연구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은 부정적 관계적 측면으로서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 등의 측면으로 나뉘어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환경 요인 가운데 부정적부모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밝힌 이영아[30], 장문영[31], 정재호[32]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장문영[31]의 연구는 높은 관련성을 입증한 반면, 이영아[30]의 연구는 거의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개인심리적 측면에서 권영[23], 이영아[30], 강명옥[33] 등의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이 집단따돌림 피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한 반면, 여은아[34]의 연구에서는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우울 요인에 있어서도 최미선[35], 강명옥[33] 등의 연구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 반면, 김혜원[36]의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밖에 충동성, 불안, 자살생각 등의 요인에 있어서도 각각의 연구 간의 서로 다른 영향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측면에서도 학업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송은주[37], 정재호[32]의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높은 영향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반면, 박경원[38]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한 억제요인 역시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 요인 등으로 구분지어 보고되고 있는데, 선행된 연구 결과, 가정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피해경험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는[30, 31] 반면, 이러한 결과와 달리 관련성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3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심리적 측면 자아존중감 요인에 있어 박금숙[8]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인 반면, 이영아[30], 여은아[34]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에 있어서도 각각의 연구간 영향관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측면 교사지지 요인에 있어서도 국현정[17], 강명옥[33] 등의 연구는 낮은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힌 반면, 박경원[38]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 요인에 있어서도 송남선[39], 전연이[40] 등 다수의 연구들은 비슷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김혜원[36], 선우현정과 이희선[41] 등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관

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한 유발과 억제요인에 있어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 측면에서 각각의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지만, 연구 간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

3.1.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으로서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서 청소년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만을 선정하였다. 둘째, 자료검색으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대한 최초의 연구[15]를 기점으로 2019년 7월까지 발표된 국내의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를 대상으로 ‘청소년-집단따돌림’, ‘청소년-왕따’, ‘중학생-집단따돌림’, ‘고등학생-집단따돌림’, ‘중학생-왕따’, ‘고등학생-왕따’ 등을 key word로 사용해 자료를 검색하였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SI), 국회도서관 등이 검색엔진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1차 검색된 자료는 석·박사 논문이 126편, 학술지 논문 66편, 총 192편이었다. 셋째, 1차 검색된 192편의 연구 가운데, 독립요인과 종속요인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관계를 통해 설명되고 있는 자료와 효과크기 변환이 가능한 사례수(N)와 상관관계치(r)가 있는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석·박사 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연구는 석·박사 본 논문만 자료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논문은 석·박사 논문 23편, 학술지 4편으로 총 27편이다.

3.1.2 자료분석 및 통계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유발하는 유발요인과 억제하는 억제요인으로 분류한 후, 영향요인으로서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 등의 요인으로 구분 후 각각 요인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MS Excel 2009로 코딩하였으며, 코딩작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 본인과 해당 전문가 2명이 사전 협의 없이 각각의 연구물을 선정

하여 코딩한 후, 최종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점검하였다.

통계분석은 CMA2(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 선택은 동질성검사와 이질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정성이 높은 무선효과 모형(Random)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효과크기 해석은 95%신뢰 구간을 산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평균 효과크기의 해석은 Cohen[42]의 표준화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기준을 따라 .10이하는 작은효과크기로, .10부터 .40이하는 중간효과크기 .40이상은 큰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출판편의(Publication bias)검증은 육안검사인 funnel plot검사, Duval과 Tweedie[43]이 제안한 Trim-and-Fill 검사, Orwin[44]의 안전성 계수 검사(Nfs)를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의 효과 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 효과크기에 대한 funnel plot검사 결과 좌측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후속 검사인 Trim-and-Fill 검사결과 10개의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연구가 추가 전 효과크기는 0.246이었으며, 추가 후 효과크기는 0.317로 큰 차이가 없어 눈에 띄는 편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Orwin[49]의 안전성 계수 검증(Nfs) 결과는 184개로 이는 전체효과크기 0.247가 작은효과크기인 .10 이하로 되기 위해,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효과크

기요인이 184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 효과크기는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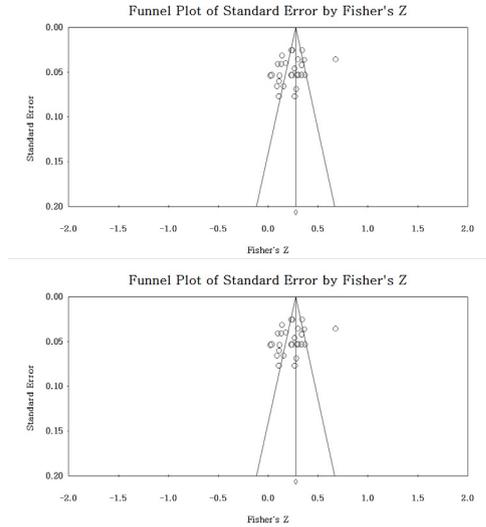


Fig. 1. Publication Bias

4.1.1 유발요인의 전체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 전체효과크기 값은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0.247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190, 상한값 0.302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42]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01보다 크고 .40보다 작으므로 중간효과크기에 해당된다.

Table 1.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Random Effects)

	Studies Trimmed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Observed values		0.246	0.190	0.301	404.044
Adjusted values	10	0.317	0.264	0.368	658.228

*** $p < .001$

Table 2. Total effect size of the inducing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I-squared
Inducing factors	29	0.247	0.190	0.302	404.044	28	0.000	93.070

4.1.2 유발요인군 별 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군인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요인군은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95% 신뢰구간에서 가정환경 요인군을 제외한 개인심리, 학교생활 요인군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2]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개인심리요인군은 0.262, 학교생활요인군은 0.218로 두 요인군 모두 .10 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발요인군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1.621$).

4.1.3 가정환경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군 중 가정환경 요인군인 부정적부모양육태도 요인은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1.4 개인심리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군 중 개인심리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2]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공격성,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요인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심리 요인군의 하부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0.757$).

4.1.5 학교생활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군 중 학교생활 요인군인 학업스트레스는 <Table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2]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ach effect size of the inducing factors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family environment	3	0.141	-0.049	0.321	1.621	2	0.455
individual psychological	23	0.262	0.200	0.323			
school life	3	0.218	0.031	0.390			

Table 4.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family environment factor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3	0.141	-0.049	0.321	0.000	0	1.000

Table 5.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aggressiveness	5	0.204	0.050	0.349	0.757	4	0.944
unrest	6	0.276	0.138	0.404			
stress	3	0.285	0.090	0.458			
depressed	5	0.275	0.124	0.414			
suicide thought	4	0.279	0.109	0.434			

Table 6.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school life factor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Academic stress	3	0.219	0.089	0.342	0.000	0	1.000

4.2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의 효과 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효과크기에 대한 funnel plot 검사 결과 좌우측이 서로 상쇄되어 평균값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향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Fig. 2). Trim-and-Fill 검사결과 2개의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연구가 추가 전 효과크기는 -0.175 이며, 추가 후 효과크기는 -0.183 으로 큰 차이가 없어 편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Table 7)), Orwin[44]의 안전성 계수 검증(Nfs) 결과는 591개로 이는 전체효과크기 -0.175 가 작은효과크기인 $.10$ 이하로 되기 위해,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효과크기요인이 591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 효과크기는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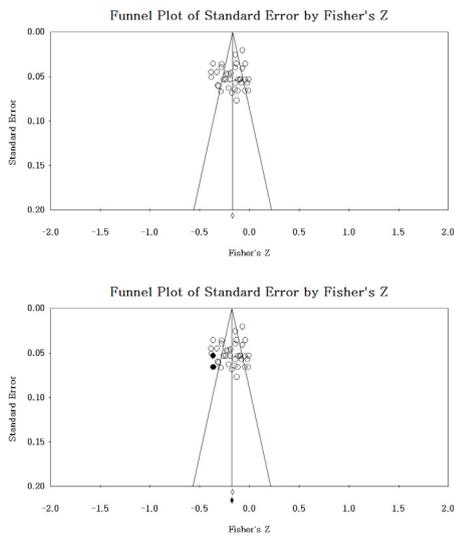


Fig. 2. Publication Bias

4.2.1 억제요인의 전체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 전체효과크기 값은 <Table 8>에서 보는바와 같이 -0.175 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210 , 상한값 -0.140 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42]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10$ 보다 크고 $.40$ 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2.2 억제요인군 별 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군인 가정환경, 개인심리, 학교생활 요인군은 <Table 9>에서 보는바와 같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2]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요인군이 $.10$ 보다 크고 $.40$ 보다 작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억제요인군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 = 2.065$).

4.2.3 가정환경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군인 중 가정환경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2]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긍정적부모양육태도와 부모지지 요인 모두 $.10$ 보다 크고 $.40$ 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부모양육태도와 부모지지 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 = 0.003$).

4.2.4 개인심리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군인 중 개인심리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요인 모두 $.10$ 보다 크고 $.40$ 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 = 0.039$).

4.2.5 학교생활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군인 중 학교생활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사지지를 제외한 친구지지, 학교생활적응 요인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42]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친구지지와 학교생활적응 요인은 둘 다 $.10$ 보다 크고 $.40$ 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요인군의 하부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 = 4.999$).

Table 7.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Random Effects)

	Studies Trimmed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Observed values		-0.175	-0.210	-0.139	207.288
Adjusted values	2	-0.183	-0.218	-0.148	228.412

Table 8. Total effect size of the suppressor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I-squared
Suppressor factors	37	-0.175	-0.210	-0.140	207.288	36	0.000	82.633

*** p<.001

Table 9. Each effect size of the suppressor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family environment	8	-0.123	-0.203	-0.043	2.065	2	0.356
individual psychological	12	-0.191	-0.252	-0.128			
school life	17	-0.187	-0.239	-0.134			

Table 10.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family environment factor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3	-0.125	-0.196	-0.053	0.003	1	0.955
Parental support	5	-0.127	-0.167	-0.087			

Table 11.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Self-esteem	9	-0.194	-0.261	-0.125	0.039	1	0.844
Ego elasticity	3	-0.180	-0.300	-0.054			

Table 12. The sub-factor effect size of the school life factor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Teacher support	4	-0.064	-0.190	0.063	4.999	2	0.082
Friend's support	4	-0.199	-0.318	-0.074			
School life adaptation	9	-0.233	-0.311	-0.153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국내에서 선행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 중 메타분석에 적합한 27편의 논문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의 전체 효과크기(0.247)는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여년 간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한 유발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한 김수진[45]의 연구에서 피해경험 유발요인의 전체효과크기(0.260)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어 뚜렷한 구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둘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군인 개인심리요인군(0.262)과 학교생활요인군(0.218)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대상 연구인 김수진[45]의 연구에서 개인심리변인(0.266)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적응관련 요인들을 메타분석 한 연구 가운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한 연구에서[46] 개인심리적 측면인 외현화(0.19)와 내현화(0.33)요인군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한 연구에서[47] 개인심리적 측면과 학교생활적 측면에서 중간효과 크기를 보인 것과도 일치되는 결과로 청소년기에 있어 개인심리적 측면과 학교생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군 중 개인심리 요인군의 하부요인인 공격성(0.204), 불안(0.276), 스트레스(0.285), 우울(0.275), 자살생각(0.279)은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중간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생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대해 연구한 김수진[45]의 연구에서 개인심리변인의 하위요인인 공격성(0.278), 우울(0.295), 불안(0.297) 등의 요인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한 김동민 등[46]의 연구에서 개인수준 요인군의 공격성(0.32), 불안(0.20), 우울(0.29) 등 개인심리적 요인들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도 일치된다. 이는 청소년기에 있어 개인심리적 요인들

이 집단따돌림 등 부정적요인들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부정적인 개인심리적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며, 특히 집단따돌림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학교 내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준다.

넷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유발요인군 중 학교생활 요인군인 학업스트레스(0.219)는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행된 연구 가운데 학업스트레스는 집단따돌림과 더불어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어 있어[9, 37, 38],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 됨을 보여준다.

다섯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 전체 효과크기(-0.175)는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여년 간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한 억제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한 김수진[45]의 연구에서 피해경험 억제요인의 전체효과크기(-0.173)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어 뚜렷한 구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여섯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군인 가정환경(-0.123), 개인심리(-0.191), 학교생활 요인군(-0.187)은 비슷한 수준에서 중간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대상 연구인 김수진(2017)의 연구에서 개인심리변인(-0.174)과 학교변인(-0.193)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적응관련 요인들을 메타분석 한 연구 가운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한 연구에서[46] 가정환경 측면의 부모와의 관계 요인(-0.13)과 개인심리적 측면인 자기관련 인지(0.18)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다. 이는 청소년기에 있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억제함에 있어 가정환경 측면, 개인심리적 측면, 학교생활적 측면의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다.

일곱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군인 중 가정환경 요인군의 하부요인인 긍정적부모양육태도(-0.125)와 부모지지(-0.127)는 모두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생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대해 연구한 김수진[45]의 연구에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0.219), 가족지지(-0.214), 긍정적 양육태도(-0.168), 부모애착(-0.151) 등의 요인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한 연구에서[46] 부모와의 관계 요인(-0.13)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도 일치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집단따돌림 피해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준다.

여덟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군 중 개인심리 요인군의 하부요인인 자아존중감(-0.194)과 자아탄력성(-0.180)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된 집단따돌림 관련 메타분석 연구[45]에서 자아존중감(-0.236)과 자아탄력성(-0.157)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한 김동민 등[46]의 연구에서 자기존중(-0.27)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도 일치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되며, 관련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억제요인군인 중 학교생활 요인군의 하부요인인 친구지지(-0.199)와 학교생활적응(-0.233)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생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대해 연구한 김수진[45]의 연구에서 학교생활 내 대인관계(-0.238)와 학교생활적응(-0.182)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학교 내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에 있어 개인심리적 요인들이 집단따돌림 등 부정적요인들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부정적인 개인심리적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며, 특히 집단따돌림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학교 내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 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준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학교 내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선행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살피기 위한 수량적 통합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를 예방하고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추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청소년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 단위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발달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수의 연구가 누적된 후 대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만을 분석하여 살폈다. 하지만 피해경험 못지않게 가해경험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하며,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되는 역전현상도 보고되고 있어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같은 틀 안에서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 있어 요인 간 차이(Q-between)는 나타나지 않아 효과크기의 우열을 가리긴 어려웠다. 하지만 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를 검증하므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한 보다 관심을 가질 요인을 분별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18 First School Violence Survey, Press Releas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pp.1-2.
- [2] S. M. Yoon, Swearing in groups as a group messenger 'Tekka', Even if you leave 'Messenger prison', Joong-Ang Ilbo, 2019[cited 2019 May 29], Available From: <https://news. Joins.com/article/23482334> (accessed Aug. 2, 2019)
- [3] J. M. Shim, Eliminate school bullying, Americas JoongAng Ilbo, 2019[cited 2019 Jun. 27], Available

- From: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369781, (accessed Aug. 2, 2019)
- [4] Y. S. Choe, S. U. You,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Neurotic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ullying and Antisocial,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Vol.4, No.2, pp.307-336, 2018.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28774>
- [5] I. J. Chung, J. Y. Lee, "The Pathways from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With a Special Focus on Differences in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Vol.23, No.2, pp.217-242, 2012.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65968>
- [6] T.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harm: Focusing on synchrony and emotional respons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2-3, 2003.
- [7] C. S. Lee, Y. R. Kweon, S. J. Kim,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Vol.16, No.1, pp.32-40, 2007.
- [8] K. S. Park, J. W. Moon, J. S. Park,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Bullying Experienc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15, No.1, pp.15-29, 2014.
 DOI: <http://lps3.www.earticle.net.libproxy.dju.ac.kr/Article/A248512>
- [9] O. S. Cho, J. A. Park, "The Effects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chool Bullying Victim on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8, No.2, pp.233-244, 2014.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4.8.2.233>
- [10] K. S.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Experience in Bullying or Being Bullied: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Ph.D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Gunpo, Korea, pp1-2, 2015.
- [11] H. L.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p ostracizing and Adolescen's Ego-Resiliency and school-adjustment*,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pp1-3, 2010.
- [12] J. E. Baek, "The Effects of Self-Control and Social Support on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among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6, No.5, pp.59-74, 2015.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4769>
- [13] J. H. Littell, J. Corcoran & V. Pillai,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18, No.5, pp.525-526, 2008.
- [14] S. S. Oh, "Meta-analysis: theory and practice", pp.2-3, Kon-kuk University Press, 2002, pp.1-283.
- [15] J. M. Lee,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Group Ostracization or Harrass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Their Solution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 of Public Administratony, Seoul, Korea, pp1-205, 1999.
- [16] D. Olweus.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35, No.7, pp.1171-1190, 1994.
 DOI: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15391812_Bullying_at_School_Basic_Facts_and_Effects_of_a_School_Based_Intervention_Program
- [17] H. J. Guk, *A Study of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ystem on the Types of Bullying Expeirence: Focused in the school children in Daejeon city*,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pp12-13, 2018.
- [18] Cheongyedon, 2011 National School Violence Survey, 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Korea, pp.1-2.
- [19]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Bullying Let's lead*,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Korea, pp.1-3.
- [20] M. K. Underwood, J. D. Coie & C. R. Herbsman,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ion in school-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63, pp.366-380, 1997.
- [21] N. R. Crick & J. K. Grotpet,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66, No.3, pp.710-722, 1995.
- [22]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dictionary, p.301,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09, pp1-500,
- [23] Y. Kwon, "The effect of self-sooth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experience and anger management",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Vol.3, No.4, pp.1-29, 2014.
- [24] Y. S. Moon,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Damaged Youth by Bullying in Group*, Master's thesis, Kyungbuk Foreign Studies University, Daegu, Korea, pp57, 2014.
- [25] S. Austin & S. Joseph.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s-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66, No.4, pp.447-456, 2014.
 DOI: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204>

- 4-8279.1996.tb01211.x
- [26] C. J. Lee, K. J. Kwak, "Self-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3, No.1, pp.65-80, 2000.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4864>
- [27] G. Gini, "Associations among overt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friends: The moderating role of the need for affective relationships with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7, No.7, pp. 812-820, 2008.
- [28] K. Ranta, R. Kaltiala-Heino, M. Pelkonen & M. Marttunen, "Associations between peer victimizatio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comorbidity", *Journal of Adolescence*, Vol.32, No.1, pp.77-93, 2009.
- [29] R. C. Sun, E. K. Hui, "Building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with suicidal ideation: Implications for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Vol.35, No.3, pp.299-316, 2007.
- [30] Y. A. Le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Bullying*,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pp1-132, 2005.
- [31] M. Y. J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on Adolescents' Bullying*,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p1-84, 2008.
- [32] J. H. Jung, *The Impact of Bullying, Parenting attitude on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Cheonan, Korea, pp1-130, 2017.
- [33] M. O. Kang, *The Benefi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Group Bullying and Emotional Stability of the Victims*,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of Education, Changwon, Korea, pp1-40, 2011.
- [34] E. A. Yoh, "Victim personality and appearance factors affecting bully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a model of consequence variable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ol.25, No.2, pp.237-251, 2017.
DOI: <https://doi.org/10.7741/rjcc.2017.25.2.237>
- [35] M.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and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ediators of Depression, Anxiety, Dysfunctional Impulsivity,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pp1-48, 2013.
- [36] H. W. Kim,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n Relationships among Peer Rejection, Peer Victimization, Psychological Health, School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3, No.2, pp.173-198, 2011.
- [37] E. J. Song, "The Effects of Bullying and Academic Stress on Adolescent Suicide Though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pp.283-322, 2015.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2975>
- [38] K. W. Park,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Stress of school works, bullying from peer groups, and social support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pp1-90, 2013.
- [39] N. S. Song, *The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Loneliness, Bully-Victim Experience, Purpose in Lif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pp1-49, 2005.
- [40] Y. Y. Jeon, *The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Behavior, Social Skill,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pp1-40, 2006.
- [41] H. J. Sunwoo, H. S.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bullying to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tudent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1, pp149-166, 2014.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62162>
- [42] J. Cohen "The earth is round (p <.05)", *American Psychologist*, Vol.49, No.12, pp997-1003, 1994.
- [43] S. J. Duval & R. L. Tweedie,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Vol.56, pp.455-463, 2000.
- [44] R. G. Orwin, "A Fail-safe N for Effect Size in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Vol.8, pp.157-159, 1983.
- [45] S. J. Kim, *A Meta-Analysis on the Elementary School Bullying Perpetration Factors and Victimization Factors: Focused on Related Triggering and Protective Variables*,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pp1-129, 2017.
- [46] D. M. Kim, M. K. Lee, Y. C. Shim, C. H. Lee, "Meta-analysis of Predictors of School Violence Offense and School Violence Victimized Experienc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2, No.2, pp.441-458, 2014.
- [47] D. I. Kim, *A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e attempt among Korean Adolesc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1-134, 2017.

문 동 규(Dong-Kyu Moon)

[정회원]



- 2002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신학석사)
- 2007년 2월 : 목포대학교 레저스포츠과(체육학박사)
- 2011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영유아교육, 청소년교육, 여가문화